



S-ART BOOTH SHOW



본회(회장 권영걸/69응미)는 '2025 S-ART BOOTH SHOW(에스아트부스쇼)'를 지난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한전갤러리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S-ART BOOTH SHOW는 6명의 부스개인전과 특별전이 열렸다. 총 6개의 부스에서 열린 개인전에는 유인수, 한석란, 박혜경, 이광택, 레이치, 이수현 작가 등 6명이 참여하였으며, 특별전 '잔상'에는 박도현, 이망고, 김윤이 작가 등 3인이 참가했다. 8일 오프닝 행사에는 본회 권영걸 회장과 김소선 고문을 비롯해 많은 내빈과 관람객이 참석하여 개막을 축하했다. 개인전 작가 유인수(66회화) 동문은 상파울로비엔날레와 칸느국제영화제 참가 등 국내외 25회의 개인전을 개최한 원로 작가로서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화에 앞장서 왔으며, 현재 상명대 명예교수이자 본회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석란(71조소) 동문은 미국에서 수학하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작가로, 익숙한 환경 속 사물을 단순화된 선과 초현실적 빛과 색으로 표현한다. 일상의 소재를 상징적 비유로 끌어들이며 시간의 흐름과 기억의 조각으로 관람객과 소통한다. 박혜경(78회화) 동문은 모교에서 회화를, 미국에서 실내건축학을, 경북대에서 건축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학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적 공간감과 회화적 서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을 선보였다. 인제대 명예교수로 50여 회 이상의 전시에 참여했다. 이광택(80회화) 동문은 중국 사천미술학원을 졸업하고 44회의 개인전과 380여 회의 단

체전에 참여했다. 1천 년 넘게 이어온 한국의 문인화 전통을 서양화 재료로 현대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며, 동양 정신과 서양 기법의 조화로운 만남을 보여줬다. 레이치(16도시설계) 명예회원은 도시설계학 박사로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아주대 강사로 활동 중이다. '우주토끼 포잉이의 지구적 응기'라는 서사를 통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여정을 그리며, 어려움에 부딪히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수현(환경대학원 SGS41) 작가는 스페인과 한국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종합예술인으로, 건축·그림·시를 넘나든다. 탄생, 성장, 사랑, 도전, 완성이라는 인생의 다섯 주기를 주제로 '머무름이 예술이 되는 공간'을 창조하며 인간의 삶과 감정을 잇는 서사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특별전 '잔상'의 박도현(16디자인) 동문은 디지털페인팅을 기반으로 물의 풍경을 기록하는 작가다. 직접 본 풍경을 자신만의 필터로 관찰하고 새로운 풍경으로 재구성하며, 물에서 느끼는 계절감과 음악적 속성을 표현하는 작업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망고(이혜리/17서양) 동문은 서양화와 미술사를 전공하고 작가이자 기획자로 활동 중이다. 명확하지 않은 형태, 흐릿한 풍경, 잘 읽히지 않는 글자를 통해 공허한 마음을 나타내며,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래 붙들기 위한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본질 대신 닿을 수 있는 겉데기를 그린다. 김윤이(23서양화) 동문은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모교 서양화과에 재학 중인 신예 작가다. 바다, 모래사구, 나무 등 일상 속 사물의 표면에서 흐름과 생명력을 포착하며, 두터운 마티에르와 화려한 색채로 빛과 시간의 흔적을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이번 전시는 원로작가들의 깊이 있는 작품세계부터 젊은작가들의 실험적이고 동시대적인 감각까지 아우르며, 개별 부스 형식은 각 작가의 독립적인 세계를 존중하면서도, 예술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풍성한 스펙트럼을 제시했다.



홈커밍데이 동문나눔한마당 ‘미술전시회’ 개최

본회는 지난 10월 19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풍산마당에서 열린 ‘2025 홈커밍데이 동문 나눔 한마당 행사’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미술전시회’ 부스로 참여했다. ‘자연이 예술을 품다’라는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오픈 아트페어로, 올해도 소품 중심의 전시·판매가 진행되어, 미술대학 동문과 재학생, 교직원, 그리고 서울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풍성한 가을의 예술 축제를 함께 즐겼다. 행사장에는 주최 측에서 마련한 간식과 더불어 정육란 고문과 타과 동문들이 풍산마당 푸드존에서 준비해온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했다. 동문들은 따뜻한 음식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새겼고, 한편으로는 본회가 제작한 위시백, 앞치마 등 실용적인 굿즈 구매도 이어졌다. 특히 선우항(91동양) 동문의 3미터



터 규모 대형 프레스코 작품이 부스의 중심을 장식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이 작품을 배경으로 하수경(70회화), 이민주(76동양), 변영혜(78회화), 박덕실(81회화), 민수정(82회화) 동문의 다채로운 소품들이 전시되어 예술적 감성을 더했다. 또한 이애자(73응미) 동문이 직접 제작한 실크 넥타이는 정교한 수공예의 미를 보여주며, 홈커밍데이를 맞아 방문한 서울대 가족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현장을 찾은 정병국(66회화), 손은신(82응미) 동문은 오랜만에 미대 부스를 방문해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본회 민수정 사무국장은 “200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에게 모교 동문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하며 본 행사의 의의를 전했다. “앞으로 더 많은 동문들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재학생과 동문 및 가족들이 자유롭게 어울리며 예술과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공연이 이어진 잔디밭 위로는 유난히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자연과 예술, 그리고 사람의 조화가 어우러진 이번 오픈 아트페어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예술적 감수성과 공동체의 힘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되었다.

회장동정



디자인 명예헌정상 수상

본회 권영걸(69응미/세종평생교육 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1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이하 디총) 창립30주년기념행사에서 디자인·건축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헌정패’를 수상했다. 디총의 명예헌정패는 오랜 기간 디자인 산업 및 공공디자인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업계에서도 높은 상징성을 갖는 상이다. 권회장은 2023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9대)에 헌액된 데 이어 이번에 또한 한 번 업적을 인정받았다. 디총 관계자는 “권영걸 회장은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를 비롯해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의 기초를 다지는 데 핵심 역할을 한 분”이라며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수행하며 디자인·건축·ICT 융합 정책을 제안하고 확산시키는 데 공헌을 해왔다”고 의의를 밝혔다.

2025 화성시 문화정책포럼 참여

지난 11월 3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 화성시 문화정책 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포럼을 진행했다. 권회장은 화성특례시의 잠재력과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제2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위촉

지난 10월 21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2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식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제2기 위원은 총 20명으로 임기는 2027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권회장은 “위원들이 세종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이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대한사립교장회 하반기연수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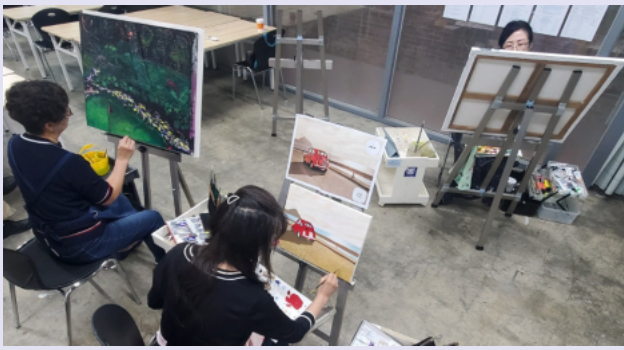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충남 부여롯데리조트에서 개최된 ‘2025 하반기 연수 및 정기총회’에서 전국 사립초·중고 교장 4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백제미술여행전 ‘이시동시’ 개최

본회는 오는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갤러리Pal에서 ‘이시동시’를 개최한다. ‘이시동시’는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백제미술여행-백제의 숨결을 따라, 부여·공주 1박 2일’에서 얻은 예술적 경험과 감흥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은 백제의 역사적 유적과 문화재를 직접 탐방하며, 왕릉·사찰·박물관 등에서 고대 예술이 지닌 세련된 조형미와 정신적 깊이를 몸소 느낀 여운을 각자의 시선과 해석을 통해 고대 백제 문화가 지닌 예술적 가치와 미적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다. 본회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고대문화의 정수인 백제 미술의 아름다움과 그 시대의 정서를 현대의 감성으로 재조명하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예술적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 또한, 동문 작가들이 공동의 체험을 통해 느낀 영감과 창작의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예술적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S-미술아카데미 수강생 소감

본회 S-미술아카데미는 지난 9월 8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15주에 걸쳐 가을학기 미술실기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본 특집은 각 강좌 수강생 소감을 담았다.



프리페인팅 | 이태림 수강생

일흔 넘은 나이에 4학기째 수강 중으로, 1973년에 취미로 서울대의대 미술부에서 유화를 처음 배우던, 꿈 많던 20대 시절로 회춘하게 해준다.

훌륭한 강사님과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올바른 자세와 개념들을 배우고, 함께 수업 후의 인사동 갤러리 탐방과 아카데미전 경험은 그림 그리기의 강한 동기를 만들어준다.

손주들에게 늦깎이 그림 그리기 할머니 학생의 도전이 큰 자랑거리가 될 것 같다.



사군자 | 김용범 수강생

사군자교실에 입실한 초년생이 1년 반 지난 사이 대단히 유익한 삶의 소득을 얻었다고 자부한다. 우호섭 동문은 그걸 늘어감의 소모를 짓뭇개 버리는 회춘의 보람이라 말했다. 의사 박호진 동문은 전혀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써 치매예방의 효과를 얻는다고 했다. 또 임순범 동문은 은퇴 후 꼭 하고 싶던 버킷리스트와 만났다고 했다. 나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재촉한다. '우물쭈물 하지 말고 붓과 먹을 사 들고 S-미술아카데미 '사군자'반으로 얼른 무조건 나와라'고.



태블릿PC디지털페인팅 | 정광현 수강생

디지털드로잉을 독학하겠다는 생각으로 수년 전에 샀던 태블릿 PC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을 무렵, S-미술 아카데미 강의 홍보를 보고 '태블릿 페인팅'을 수강하게 되었다. 아직은 서툴지만, 새롭게 알게 되는 세상이 신기하기만 하다. 수많은 붓과 온갖 물감, 팔레트 그리고 스케치북까지 각종의 화구들이 없는 게 없이 가득 들어있는 납작한 태블릿을 열어 언제 어디서나 그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인사동 강의실을 찾는다.



기초소묘드로잉 | 윤미혜 수강생

담당 강사님의 개별 지도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다.

수강생에 따라 적절한 지도를 해주시는 시간이 짧지 않아 알찬 수업이 되는 것 같다.

모두 초보지만 미술에 대한 수강생들의 열정이 잔잔히 깔려있고,

인내심과 친절 뒤에 비춰지는 담당 강사님의 예술가적 포스도 어우러져서 수업 분위기가 참 좋다.



수채화 | 조경숙 수강생

수업 첫날부터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설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매시간 선생님께선 내 그림에서 나의 질문을 찾아내시는 것 같다. 다양한 답을 주며 수채화의 매력을 알려 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천천히 하나씩 배우고 있는 요즘, 새로운 일상도 추가되었다. 길 걷다 문득 눈앞의 풍경이 앱을 사용한 수채화풍으로 바뀌어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수채화반과 함께 교실 안팎에서 '수채화놀이'에 스며들어가고 있다.



현대수묵화 | 이애자 수강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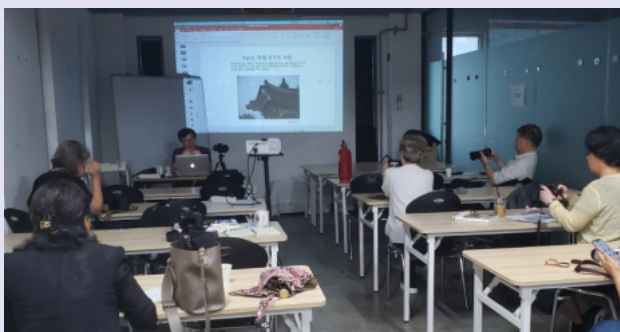
동양화를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로 이번 현대수묵화를 수강했다.

임백련, 제백석, 정선 작가의 작품을 연구하고 실습하며 수묵의 다양하고 풍부한 세계를 경험했다. 관념화된 동양화의 틀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힘있는 현대적인 조형표현의 가능성을 보았다. 특히 자기의 기질과 개성을 찾아가며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개별적인 지도를 받은 점이 좋았다.



유화 | 김성하 수강생

내 인생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해 유화반 수강을 결심했다. 매주 3시간씩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자의 개성을 담은 유화 작품을 완성해 가는 단계를 보면서 Fine Art가 주는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분명 성취감 그리고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사진완성클래스 | 권경훈 수강생

가볍고 편리한 휴대폰 카메라에 밀린 크고 무거운 카메라를 오랫동안 방구석에 처박아 두었다. 사용법도 제대로 모른 채로 묵혀두었던 카메라를 사진 수업 덕분에 다시 꺼내었다. 촬영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서 카메라를 통해 바라보는 멋진 세상을 즐기고 있다. 강좌를 만들어주신 아카데미와 강사님께 감사드린다.



자유크로키 | 박수현 수강생

각자의 일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카데미를 운영해 주신 분들의 추진력과 봉사정신 덕분에 이러한 배움의 장이 가능했다고 느꼈다. 평소 드로잉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에 좋은 기회를 얻어 S-아카데미에 함께하게 되었다. 다양한 모델을 대상으로 한 수업은 신선한 자극이 되었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머리를 비우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모교소식



2025 IDCC

모교(학장 정의철)는 서울대학교미술관 (MoA)에서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국제 디자인 컨퍼런스 ‘IDCC 2025: Design Education Futures’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배재혁 교수와 크리스 하마모토(Chris Hamamoto) 교수가 BK21 사업단의 지원으로 공동 주관했으며, 전 세계 디자인 교육자와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자인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Design Education Futures’라는 주

제 아래,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사회 구조 속에서 디자인 교육이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학습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디자인이 단순한 문제 해결의 도구를 넘어, 비판적 사고와 사회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교육적 실천으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했다. 이번 IDCC 2025에는 Andrea Steves, 박찬신, Chris Mitchell, 강이룬, 박유진, 서효정, Kenya Hara, Matthieu Becker, 민구홍, School of Commons, 최태윤 등 국내외 11명의 연사가 참여했다. 각 연사는 예술·기술·사회를 넘나드는 다양한 연구와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동시대 디자인 교육의 변화를 다각도로 탐색했다. 또한 이장섭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INNOEDU 포럼에서는 혁신적 디자인 교육 모델과 교육 커리큘럼의 실험적 시도가 공유되며, Matthieu Becker, Taeyoon Choi × forever☆ gallery가 참여하는 워크숍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협업 방식과 창의적 학습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디자인학부 이장섭 교수 월드푸드테크컨퍼런스 참여

모교 디자인과 이장섭(97디자인) 교수는 지난 10월 13일 서울 한국과학기술관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2025 컨퍼런스 ‘서울 X 푸드컬처테크’ 세션에 참여했다. 이장섭 교수는 이날 ‘디자인 퓨처 푸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장섭 교수는 “과학은 사실을 밝혀내고 기술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지만, 디자인은 가능성을 더해준다”며 “사회 혁신과 기술 혁신, AI 혁신이 세상을 빠르게 바꾸는 시점에 누군가는 더 먼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태와 기술과 사회와 문화를 다 교차하는 가장 원초적인 매체가 푸드”라며 현재 진행중인 ‘메모리얼 푸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는 2030년까지 발전할 3D 프린팅 푸드, 푸드 업사이클, AI 기술을 결합하여 인생의 신경 기억을 맛으로 구현하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음식이다. 그는 “죽기 전 신경의 기억을 스캔해 맛으로 구현한다면,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인생의 기억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형연구소 ‘대학 연구성과 사회환원 프로그램’ 진행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는 서울대의 사회적 봉사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2025 대학 연구성과 사회환원 프로그램: 미술톡톡, 우리들의 미술 이야기’를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했다. 조형연구소는 그동안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 경기꿈의대학, 수원문화예술플랫폼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며 지역사회 예술 교육과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러한 사회적 실천의 연장선에서 기획되었

으며, 모교 출신 작가와 미술사 연구자들이 참여해 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미술톡톡’은 참여자에게 미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제안하며,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통해 사고의 폭을 확장하는 창조적 경험을 선사했다. 강연에 참여한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주제를 다루는 미술사와 예술 실천을 함께 탐구하고 토론하며,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회 손예은 회장, 서현수 부회장 선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42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 선거’가 진행되었다. 후보 등록은 11월 2일까지였으며, 3일부터 7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 이어졌다. 본 투표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미술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복수전공생, 연합전공 진입생 등이 참여하였다. 올해 선거에는 [소통으로 잇다, 변화로 나아가다 : 이음] 선거운동본부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이음]은 최종 투표율 51.82%(170명), 지지율 94.7%를 기록하며 당선되었다. 선본은 정후보 손예은(24동양화), 부후보 서현수(25디자인), 선본장 유민하(24동양)를 비롯해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음]은 기초문을 통해 학내 소통 구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소통·복지·교육의 세 분야에서 총 14개의 공약을 내세워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새로 당선된 [이음]은 오는 12월 1일부로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사=조민경)

미술경영전공 초청강연



모교 협동과정 미술경영전공은 지난 10월 28일, 예술계북합교육연구동(74동) 오디토리엄에서 애리조나대 미술사학과 김지혜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1930년대와 70년대 한국사진의 교차점(Parallels in Korean Photography: The 1930s and the 1970s)”으로, 한국 근현대 사진사의 주요 전환기에 나타난 미학적, 사회적 변화를 비교하며 탐구했다. 김지혜 교수는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대를 잇는 두 시기를 중심으로, 사진이 당대의 시각문화와 정체성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이번 초청 강연은 미술사 및 미술경영, 시각문화 연구에 관심 있는 학내 구성원은 물론, 한국 현대미술과 사진사에 관심 있는 일반 청중에게도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했다. 모교 관계자는 “이번 강연은 사진을 통해 한국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전환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대극회 118회 정기공연



모교 공식 동아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극예술연구회(이하 미대극회)’가 준비한 118회 정기공연 ‘리틀 댈컴’이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인문소극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미대극회는 온라인 펀딩(텀블벅)을 통해 2,985,000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약 300여 명의 관객을 모객했다. 총 54명의 학생들이 모여 준비한 이번 공연은 미술대학 학생들의 감각과 특성을 발현하여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한 공연으로 평가된다. 연출을 맡은 김나연(23동양) 학생은 “긴 시간동안 함께 공연을 만들어 온 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미대극회는 오는 12월부터 119회 정기공연의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대소식



서울대종합화 50주년기념행사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은 지난 10월 1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종합화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회고와 미래 비전: 전임 총장들에게 듣다’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우중호 전 총장을 비롯해 전임 총장 3명이 참석해 대담을 열었다. 대담에 앞서 유홍림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종합화는 물리적 이전만 뜻하지 않는다. 국가적 프로젝트로서의 종합화의 의미를 50년을 회고하면서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50년이 서울대 50년과 함께 간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점검한 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우중호 전 총장은 “서울대 종합화는 서울대의 가장 큰 변화였다. 그 당시에는 학문 분야별로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추세였다”면서도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를 다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성낙인 전 총장은 “서울대라는 거대한 조직은 교수 개인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면서 발전해나간다”며 “서울대가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더 좋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오세정 전 총장은 “서울대 종합화는 학생 교육에도 중요한 변화였다”며 “총장 재임시절 만난 이공계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문사회 강의도 듣고 동아리도 하며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을 만나는 것을 이점으로 꼽았다”고 기억을 전했다.



학술연구교육상 시상

서울대학교가 지난 10월 31일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320호에서 남다른 열정과 창의적인 강의로 대학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교수 10명을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는 조소과 박제성 부교수를 비롯해 노어노문학과 박종소 교수, 경영학과 양홍석 교수,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최종근 교수, 교육학과 임철일 교수, 수학교육과 유연주 교수, 수의학과 최강석 부교수, 약학과 오정미 교수, 법학과 노혁준 교수,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김형신 부교수 10명이다. 서울대는 대학교육 발전을 견인하며 우수 교수법 확산 및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 개발 및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정으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를 선정해 2005년부터 매년 학술연구교육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시각장애예술가전 ‘달창은 하루’ 개최

서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2025 장애인식개선주간’을 개최했다. ‘그냥 () 입니다만’이라는 제목으로 모두가 각자 고유의 정체성이 있지만, 다를 것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모두가 각자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캠퍼스를 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회부터 연사 초청 강연, 장애인식개선교육까지 다양한 형태로 학생

들에게 장애인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시각장애 예술가 전시회 ‘달창은 하루’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갤러리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이뤄졌다. 전시회 제목에도 있는 ‘달창다’라는 단어는 ‘다르지 않다’의 줄임말이면서 ‘달라도 괜찮다’라는 뜻이 있다. 즉, 시각장애 예술가들이 다른 예술가들과 다름이 없으며 혹 다르더라도 괜찮다는 전시 전반의 뜻을 한 단어에 담고 있다. 이 전시는 시각장애가 있는 예술가 7명(강금영, 박환, 유진, 정은교, 최경은, 한영희, 허은빈)이 만든 전시로 예술가들은 자신의 보통의 하루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전시는 베리어프리의 형태로 기획되었으며, 사소한 부분에서 생소한 경험을 제공했다. 먼저 전시장 내부에는 간이 보도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도왔다. 또한 팸플릿은 목자 버전만 있지 않고 점자 버전도 함께 놓여 있었으며, 글로 적혀있는 작품 해설란 옆에는 음성 해설을 받을 수 있는 QR코드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명록의 형태를 점자로 적게 하여 방문객으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서울대박물관 기획특별전 ‘낮은 유물, 낮은 삶’

서울대학교박물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서울대 종합화 50주년을 맞아 기획특별전 <낮은 유물, 낮은 삶>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특별전에서는 새롭게 단장한 인류민속실에서 △만주 몽골 △뉴기니 △그린란드 △인도네시아 등 세계 여러 지역의 민속 유물과 한국 전래 민속품을 함께 전시한다. 22일 열린 개막식에서 축사를 맡은 권오영 박물관장(국사학과)은 “이번 전시는 서울대 종합화 50주년을 맞아 우리 박물관 또한 종합화하겠다는 흐름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시의 낮은 유물들 또한 인류 공통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딘가 낮은 부분은 있을 것”이라며 “제목이 내포하는 의미를 느껴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개막식에 참석한 유홍림 총장은 전시를 관람한 뒤 “낮은 것을 익숙하게 보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과정을 통해 인간 문화의 다양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는 기대를 전했다. 이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여정의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미술관 ‘차원확장자’ 개최



서울대학교미술관은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11월 23일 까지 전관에서 전시 ‘차원확장자: 시·이미지·악보·코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상, 백남준, 구자명, 김호남, 김은형, 정수정, 윤향로, 기민정, 전소정 등 9명의 예술가가 참여하여, 각기 다른 매체와 시각적 언어를 통해 동시대 예술의 다층적 지형을 탐색한다. ‘차원’이라는 전시의 핵심 개념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다. 이 전시는 기술이 규정하는 예술의 조건, 작품을 인식하는 관점의 틀, 그리고 감상자가 작품을 경험하는 방식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차원의 의미를 탐구한다. 관객은 시(詩), 이미지, 악보, 코드에 더해 서사, 빛, 음향 등 다양한 감각적 요소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예술적 경험을 마주하게 된다. 전시장은 전통적 예술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 아트’, ‘사운드 아트’ 등의 익숙한 분류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새로운 예술의 지점을 제시한다. 이번 전시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10월 15일 개교기념일에는 휴관한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대학교미술관(02-880-95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동창회소식



홈커밍데이 동문나눔한마당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는 지난 10월 19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풍산마당에서 ‘2025 홈커밍데이 동문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0여 명의 동문과 그의 가족들이 참가했다. 서울대학교 종합화 50주년을 맞아 김종섭(66사회사업)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모교의 반세기 발전은 선배들의 헌신과 후배들의 열정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홈커밍데이가 그 연결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1300여 명의 동문이 마음을 모아 총 1억 6000만원의 협찬금과 30여 종의 물품을 후원하며 풍성함을 더했다. 행사는 오전 11시, 캠퍼스 자유탐방으로 막을 올렸다. 정문에서 출발한 동문 가족들은 미술관, 박물관, 규장각, 자하연, 중앙도서관을 차례로 둘러보며 서울대의 변화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미술관·박물관·규장각 등 주요 문화시설은 휴일임에도 이날 동문을 위해 특별 개방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오후 1시 정각에는 단과대 풍물연합회 ‘단풍연’의 북소리가 버들골을 채우며 힘차게 울려 퍼졌다. 풍물패가 잔디마당을 한 바퀴 돌며 흥겨운 장단을 이어가자, 총동창회 임원진과 멀리 미국에서 홈커밍데이를 위해 참가한 미주동문들이 그 뒤를 따라 입장했다. 행사장에는 페이스페인팅, 타투스티커, 사진 촬영 등 재학생들이 준비한 이벤트와 무대가 이어졌다. 올해 홈커밍데이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자리가 되었다.



국토문화기행

총동창회는 지난 9월 25일 국토문화기행으로 50여 명의 동문들이 논산 종학당 및 윤증고택을 탐방했다. 행사 진행은 성봉주(84체육교육) 국토기행 대장이 맡았다. 성봉주 동문은 “곳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참가자들을 맞았다. 이번 국토문화기행은 동문들이 함께 걸으며 선비의 지혜와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 뜨거운 참여와 호응에 힘입어, 총동창회는 내년부터 국토기행을 기존 연 2회에서 2회를 추가해 총 4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차기 회장·감사 예비후보자 접수

총동창회 회장추대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부터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모집을 공고 게시하고 11월 3~14일 회장 및 감사 예비후보자 접수했다. 회장추대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2차 추대위원회 회의를 거쳐 회장 및 감사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는 내년 3월 12일 상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내년 3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최종 선출된다. 총동창회 회장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어 최대 4년간 재임할 수 있다. 2024년 연임해 올해 4년 차를 맞은 김종섭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총동창회는 지난 9월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1대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제1차 회장추대위원회를 열고 추대위원장으로 임현진(67사회) 서울대 명예교수를 선출했다. 부위원장은 조순용(71동양사) 전 대통령 정무수석이

선임됐다. 회장추대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12명, 모교 총장 지명 3명, 대학 대학원동창회장들이 상호 선출하는 당연직 부회장 12명으로 구성됐다.



관악경제인회 스타트업혁신 조찬포럼

관악경제인회(회장 서병륜)는 지난 10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스타트업혁신 조찬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서병륜(69농공) 관악경제인회장, 이희범(67전자) 부영그룹회장, 오세정(71물리) 전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회원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는 ‘맨데이터’, ‘크로프트농업회사법인’, ‘소프트이노믹스’ 등 3개 스타트업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번 포럼을 개최한 관악경제인회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재정기부금 단체(공익법인)로 지정돼 기부금 납부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관악경제인회는 지난 11월 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모임공간 상연재 별관(시청역점, 성공회 빌딩 본관)에서 ‘제1차 ESG경영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관악언론인회 정기총회 및 서울대언론인대상 시상식

서울대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악언론인회(회장 박민)가 지난 10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 및 제22회 서울대 언론인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섭(66사회사업) 총동창회장, 이희범(67전자) 부영그룹 회장 등 모교와 언론계를 대표하는 동문 선후배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대 언론인의 자긍심을 되새겼다. 사회는 이혜승(95언론) SBS 아나운서가 맡았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서울대 언론인대상의 영예는 최 훈(81외교) 중앙일보 대기자와 조복래(81정치) 전 연합뉴스 상무에게 돌아갔다. 두 수상자는 대학 동기이자 1988년 언론계에 함께 입문해, 40여 년 가까이 각자의 현장에서 언론의 공공성과 품격을 지켜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시상자에게는 김종섭 회장이 상금 각 1천만원을 전달했다.

12월 수요일특강

- 일시 : 12월 3일(수) 오전 7시 30분
- 장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 강연자 : 바리톤 박경준
- 주제 : 오페라 인문학
- 참가신청[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 입금
 - 문자/1599-7704 이메일/member@snu.ac.kr
 - 참가비 : 2만원 (간단한 간식, 생수, 도서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입금 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 (예 홍길동12월수요)
 - 11월 25일(화) 이후 신청취소 시 참가비 환불 불가
- 문의 : 02-702-2233

회비납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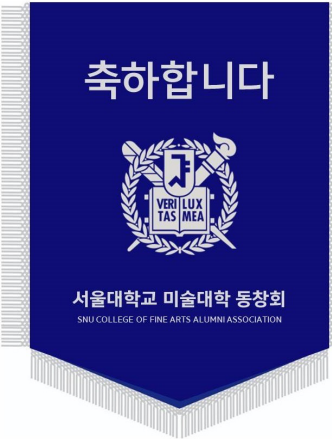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2025.10.16.-11.11)

- 평 생 회비 윤주원(95서양) 정병구(66조소) 한석란(71조소)
- 일 반 회비 최용훈(93조소)
- 후 원 금 S-미술아카데미 크로키반 15만원
- 광고후원금 김형주(66회화) 3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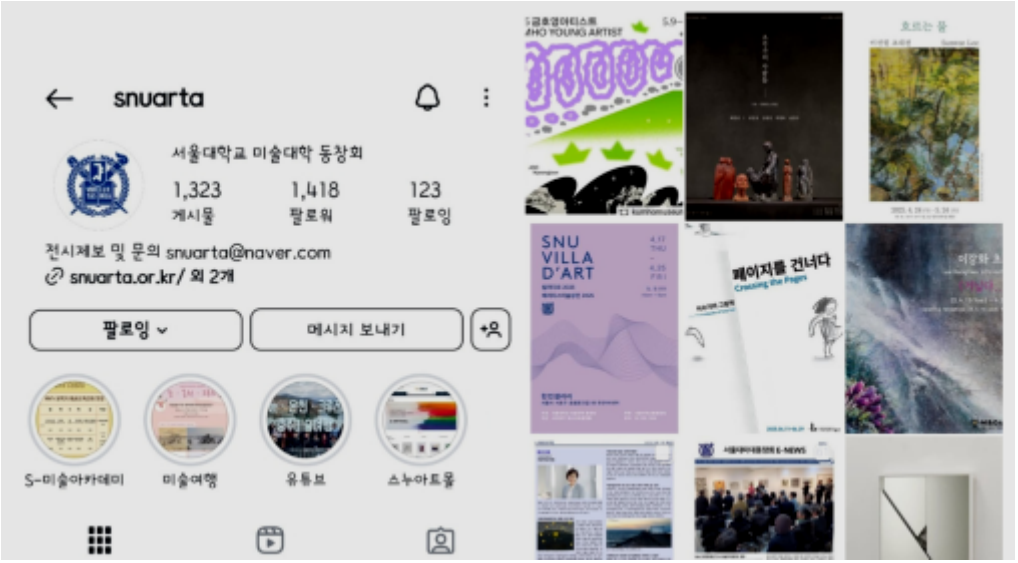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
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
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
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
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
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소식을 보내주세요~

본회 소식지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15일 발행되어 동문 및 관련
단체 등 4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휴대폰이나 본회 인스타그램 ·
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 · 인사 · 수상 · 개업 · 결혼 ·
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
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
있으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S로 직접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 ·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
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
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광고후원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 · 단체 · 개인의 홍보를 이
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말일
- 발 행 일 : 매월 15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S-미술아카데미

겨울특강 수강생모집

2026 겨울특강 미술실기강좌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오전 10 - 13시	기초소묘드로잉 인체를 이용한 기초 드로잉 김호준	프리페인팅 유화·아크릴화 조명식	현대수묵화 풍경·인물·문인화 정물의 변용 조래원	태블릿PC 디지털페인팅 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 이영훈
오후 14 - 17시	자유 크로키 누드 강사 없음	포토샵 배우기 기초부터 활용까지 이영훈	사군자 여백과 묵향의 힐링 변영혜	수채화 초·중·고급 박혜령

주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주관 (사)에스아트플랫폼 후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접수기간
12월 5일(금)~25일(목)

접수방법
문자접수(010-8605-8065) 및 수강료 입금
계좌: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수강기간
26.1.5(월)~2.27(금) 7회 / 공휴일 휴강(보강 진행)
오전강좌: 10~13시 / 오후강좌: 14~17시

강의장소
S-미술아카데미 실기실(종로구 인사동9길16 백악미술관2층)

수강정원
강좌별 15명(신청순 접수. 복수신청 가능, 10명 미만 폐강)

수강료
강좌별 21만원(7회)
*자유크로키 10만원(5회) 모델료 별도
*환불규정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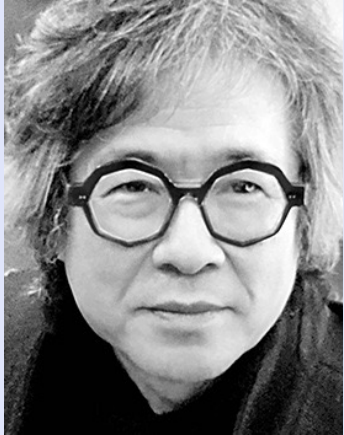
강사진 및 아카데미 안내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홈페이지 참조
snuarta.or.kr (S-미술아카데미)

문의
02-877-8065(평일 10시~17시)

동문탐방

김복기(80회화) 아트인컬처 대표 인터뷰

42년째 미술 언론인으로 일하고 있다. 기자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원래 글쓰기를 좋아했다. 대학 시절 현대 미학, 예술사론, 예술사회학 등에 깊이 빠졌다. 미학과 대학원에 합격했지만, 중앙일보 출판국 『계간미술』 기자 모집에 응시했다. 경쟁률이 37 대 1이었다. 최종 면접자 8명 중 6명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서양화와 선배 한 분이 함께 면접을 봤다. 그분은 떨어졌는데, 나중에 유학을 마치고 서양화과 교수로 부임했다. 1984년 2월 1일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월간미술』 편집장으로 활동 당시 이야기는?

그 시절 중앙일보는 신사옥 이전과 창간 2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인력을 충원했다. 미대 출신이 언론사에 들어가기 어려운 때였다. 그곳에서 배우는 게 많았고, 처우도 대학교수 못지않았다. 무엇보다 기자 일이 내 적성에 잘 맞았다. 1989년 『계간미술』이 『월간미술』로 재창간되었고, 이후 ‘발탁 인사’로 일찍 간부가 되었다. 언론의 중심에서 권력을 누렸던 화양연화의 시절이었다고나 할까? 잡지를 만들다 보면 서울대 출신만 챙긴다는 오해도 받는다. 반면 서울대 동문들에게는 “너무 깐깐하다”라는 평도 들었다.

1996년 일본에서 공부하게된 계기는?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장학금을 받아 6개월간 도쿄에서 미술사를 연구했다. 회사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장학금까지 더해 급여가 세 배나 됐다. 그때 일본어를 익히고, 그곳 미술인들과 네트워크를 쌓았다. 그 시간이 내겐 큰 자산이 됐다. 원래는 파리 유학을 꿈꿨는데 좌절됐다. 이후 일본이 지식과 정보의 창구가 됐다. 미술계에서는 날 ‘일본통’이라고 한다. 150회가 넘는 해외 취재를 다녔지만, 잡지 제작 때문에 보름 이상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 요즘은 ‘원격 관리’가 가능하니, 앞으로 해외 장기 체류의 꿈을 꾸고 있다.

IMF 시기인 1999년 『아트인컬처』를 창간했다.

중앙일보가 계열 분리되면서 『월간미술』이 독립했다. 언론사 간부로서 자부심이 컸던 내게 작은 회사는 ‘구멍가게’처럼 느껴졌다. 그 무렵 ‘이제는 출판과 경영을 직접 해보자’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신문사 선배들과 함께 새 잡지를 창간했다. IMF 때였으니 참 무모했다. 우리는 ‘좋은 책’을 만

들겠다는 열정 하나로 뭉쳤다. 문제는 ‘팔리는 책’이었다. 경영 감각이 부족했고, 내부 분열 끝에 내가 잡지를 홀로 떠맡게 됐다. 죽을 고생이었지만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창간 당시의 그 짜릿한 에너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캐치프레이즈는 ‘새 시대의 눈, 살아 있는 미술 저널’

『아트인컬처』의 정체성과 주요 기획을 소개한다면?

우리 잡지의 색깔은 ‘젊음’과 ‘동시대성’이다. 기획과 디자인에서 항상 한발 앞서고자 했다. ‘New Face’, ‘동방의 요괴’ 행사를 통해 젊은 작가 발굴에 앞장섰고, ‘New Vision’ 신인 평론 공모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 낸 활력은 21세기 한국미술의 젊은 에너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젠 신생 잡지가 아니다. 올해는 「광복 80년, 한국미술 80년」 같은 미술사적 무게가 실린 연재 특집 기사를 기획했다. 시대의 담론을 만들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 그것이 잡지의 사명이다.

영문 잡지 『아트인 아시아』는?

2007년 격월간 『Art in Asia』를 창간했다.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통권 48호까지 발행했다. 영어 잡지를 만들며 비로소 ‘세계의 중심’을 실감했다. 그러나 작은 회사가 감당하기엔 벅찼다. 휴간했다가 그 꿈을 버리지 못해, 작년부터 『아트인컬처 인터내셔널』을 펴내고 있다. 온라인을 병행하는 등 새로운 생존 방식을 실험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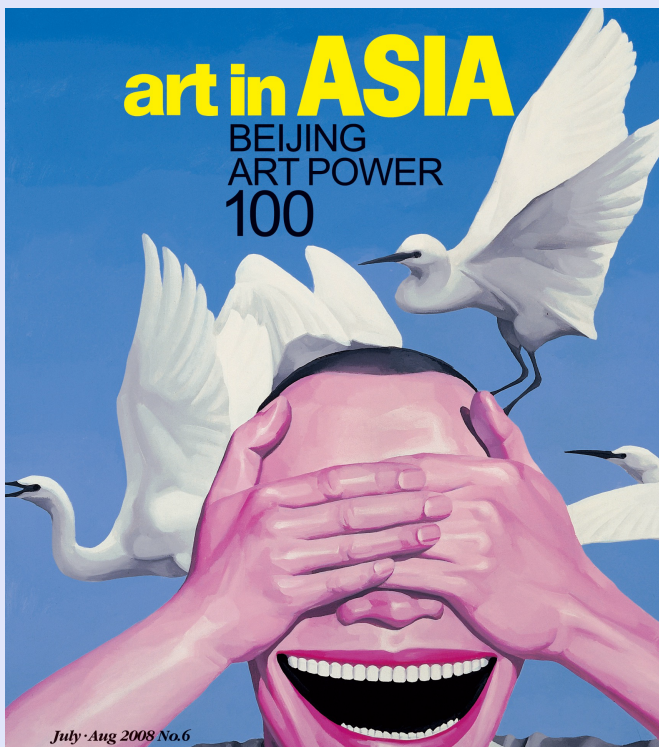


『아트인 컬처』가 창간 25주년을 넘겼다.

여기까지 버텨 온 게 기적 같다. 스스로 놀란다. 미술계 모든 분의 도움 덕분이다. 창간 초기에는 늘 아슬아슬했다. ‘빨리 잡지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빌었다. 10년을 넘기고, 200호를 넘어서면서 비로소 자생력이 생겼다. 잡지는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종이 매체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좋은 잡지’에 목이 마른다. 그 열정만은 식지 않는다.

대학교수로도 재직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나는 평생 단 두 번 이력서를 냈다. 신문사와 대학교 두 개의 조직에서 일을 해왔다. 지난 13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올해 퇴직했다. 이제는 사학 연금을 받게 됐지만, 내 정체성은 여전히 언론인이다. ‘이중 직함’에서 벗어나니 홀가분하다. 앞으로는 개인 연구, 저술에 힘을 쏟을 생각이다. 곧 『21세기 미술 칼럼』이 출간될 예정이다. 이 책은 『아트인컬처』의 「에디토리얼」에 실었던 글을 엮은 책이다.



김복기 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학과에서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1984년 중앙일보사에 입사해 『계간미술』, 『월간미술』 기자, 편집장을 지냈다. 1999년 『아트인컬처』를 창간했다. 2012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대 교수로 일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역임했다. 중앙일보 특종상, 일본 국제교류기금 펠로우, 석남 이경성을 기리는 미술이론가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즐거운 명화 여행』, 『21세기 미술칼럼』, 『이우환, 무한의 예술』(공저) 등이 있다.

문화예술특별강연회 강연 김병중(74회화)

지난 9월 25일 인천경영포럼이 라마다송도호텔 르느와르홀에서 '2025년 제3차 운영위원회 및 제499회 문화예술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 및 문화예술 특별강연회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인천시 원로 자문단, 인천시 지역 단체장, 대학총장 및 언론계 대표인사와 인천경영포럼 안승묵 명예회장, 원용휘 회장을 비롯해 인천경영포럼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으며, 인천경영포럼의 창립26주년 기념 강연 500회 달성기념행사와



해양항공물류위원회 창립 등 미래를 위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여러 현안을 심층 있게 토의했다. 제499회 문화예술 특별강연회에서 김병중 동문은 “K문화 예술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인천경영포럼 회원사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문화적 통합’을 역설하면서 참석한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강연을 했다. 한편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김동문은 모교 학장, 서울대 미술관장, 모교 교수를 역임했다.

2025 문화정책 포럼 개최 안필연(80조소)

안필연 동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지난 11월 3일 '2025 문화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탄북합문화센터 아르코공연연습센터 화성 대연습실에서 개최됐다. 재단은 매년 문화정책포럼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예술가·전문가가 함께 화성시의 문화정책을 설계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해왔다. 권영걸 좌장의 진행으로 예술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창작 기반과 정책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 되었다. 이번 포럼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지역 문화와



예술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안동문은 “예술에 아날로그적 감성과 기술을 담은 디지털의 지성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문화 혁신이 완성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디지털 기술 위에 시민과 예술가의 감성 그리고 창의성이 더해져 기술과 예술이 공존하는 문화도시 화성의 방향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동문은 모교 조소과 및 동대학원 석사, 뉴욕시립대학 도시디자인 석사,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박사를 마쳤다.

평화프로젝트 추진 손은신(82응미)

사단법인 케이메시나네트워크 이사장 손은신 동문이 남북한 문화교류를 위해 ‘평화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북한과의 문화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한다. 손동문은 남북한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내년 4월 통일부와 함께 ‘평화, 바람이 분다’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북경에서 남북한, 중국 작가가 함께 하는 평화 전시다. 또한 (재)서보미술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사)케이메시나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수묵화가 진석(陈石) 작가의 전시가 지난 10월 29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서울 마포구 서보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중국 진



석(陈石) 작가 초대전 ‘묵색지광 墨色之光 - 중국 수묵의 현대적 해석’은 향후 남북한 및 한중일 문화 교류의 시작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전시를 주관한 손동문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중 문화교류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중일 문화교류를 위해 내년 8월 교토 미술관에서 열릴 청년 작가 전시회도 준비 중이다. 한편 손동문은 한중 문화교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24년 8월 귀주성과 한중문화교류를 위한 중국 귀양시와의 협약식을 갖고 한중 문화교류 민간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국제아트심포지움 참가 신하순(83동양)

신하순 동문이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인도 비카너 하라샤 하벨리에서 열리는 국제 아트 심포지움에 서길현, 김호준 동문을 비롯해 김보연, 김창래, 이승은, 최해나 작가와 함께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도라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소사이어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인도측 AOVM과 한국측 KICAA의 25년간 교류의 확장된 장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인도 각 지역과 한국에서 선정된 작가들이 각자 표방하는 현재와 미래의 미술세계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고 동시에 작품을 제작하는 워크숍을 동반하여 각 나라, 각 지역의 예술을 한 장소에서 직접 교류하며 문화의 장을 확장시킨다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 전시참가자는 위 세미나참가자들을 비롯해 민수정, 박소영, 윤기연, 이민주, 이상은, 이호욱 동문과 유벽, 조기주 작가 등이다. 한편 신동문은 현재 모교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인도현대작가교류회(KICAA) 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술연구교육상 수상 박제성(98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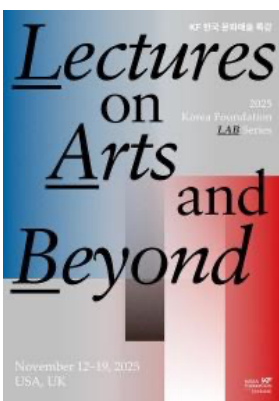
모교 조소과 교수 박제성 동문이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10월 31일 학부대학 320호에서 남다른 열정과 창의적인 강의로 대학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교수 10명을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는 박동문을 포함하여 노어노문학과 박종소 교수, 경영학과 양홍석 교수,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최종근 교수, 교육학과 임철일 교수, 수학교육과 유연주 교수, 수의학과 최강석 부교수, 약학과 오정미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노혁준 교수,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김형신 부교수 등 10명이다. 박동문은 AI·VR·3D프린팅을 순수미술 교육에 접목해 ‘작품연구: 공간설치’, ‘디지털조각’ 등 PBL 협업수업으로 공공미술 진로·창업까지 잇는 실천형 교육을 구현했다. 학부대학 ‘인공지능시대의 문화예술’, ‘시청각예술콘텐츠 제작’, ‘신입생세미나(창의와 도전)’를 개발 및 운영하며 융합 기초교육을 선도했다. 미대 부학장·조소과장·영상매체 예술연합전공 주임, 문화예술원 예술감독으로 학사와 비교과 전반을 주도했다.

KF한국문화예술특강 강연 이진준(01조소)

이진준 동문이 지난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과 영국에서 열리는 '2025 KF 한국 문화예술 특강 시리즈'에서 강연을 맡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과 영국 현지 5개 기관과 함께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학문적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미국에서는 뉴욕대 미술사대학원, 시카고예술대학,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협력해 한국 건축 예술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미국 강연자로는 배형민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이동문은 영국에서 런던대 SOAS와 셰필드대 한국학



센터의 협력 아래에서 강연을 맡았다. 그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같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와 디지털 예술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강연에서는 자신의 최근 작품을 포함해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한국 미디어아트의 현황과 미래를 소개했다. 한편 이동문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모교 조소과 학사 및 석사 과정을 거쳤다. 방송국 PD로 활동한 후 미술 분야로 전공을 전환했으며, 현재는 카이스트 문화 기술 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이종상(59회화) 외

'제46회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대한민국예술원 전시실에서 열린다. 본 전시에는 미술분과 현 회원 19명 및 작고회원 1명의 작품까지 총 37점이 전시된다. (△한국화 이종상, 이철주, 오용길 △서양화 윤명로, 유희영, 박광진, 김숙진, 정상화, 김형대 △조각 전뢰진, 최종태, 엄태정, 최의순 △공예 이신자, 강찬균, 조정현, 정해조 △서예 김양동 △건축 윤승중 회원이 참여하며 지난 6월 작고한



홍석창 회원의 작품 1점) 특히 올해는 미술분과 신입회원으로 선출된 오용길, 정해조, 김양동 회원의 작품이 더해져 더욱 풍성한 미술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원 담당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로 미술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라며, “미술 각 분야에서 한국미술의 정통성을 이어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추구해 온 작가들의 연륜과 뜨거운 창작 열정이 미술애호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낮선자의 포에지 엄태정(58조소)

엄태정 동문의 개인전 '낮선자의 포에지'가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동탄북합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기획 전시로 엄동문은 자신을 알리기 위한 전시가 아닌 작품을 매개로 낭만주의의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1972년 첫 개인전 이후 반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금속의 물질성으로 추상적 사유를 드러내는 작업을 지속해 온 엄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신작과 상징성이 있는 기존 작품 등을 아



울러 대형 조각, 오브제, 드로잉, 평면 등 30여 점을 선보인다. 대표적인 것을 향하는 예술은 '현상증', 등지는 것은 '원천증'이라고 설명한 그는 자신의 작품은 특별한 담론이나 견해를 담지 않고 미묘한 무의식적 현상 등을 표현하는 원천증의 성격이 다분하다고 소개했다. 한편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엄동문은 35년 전 작업실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화성에 정착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생명나무 서동희(66공예)

서동희 동문이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는 12월 22일까지 서울 광진구 바이블도자예술관에서 개인전 '생명나무'를 연다. 서동문은 "한미교육위원단 후원 하에 미국 캔사스대학교에서 현대도에 연구를 시작한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소재로 한 작품 등 최신작이 출품됐다"고 말했다. 그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생명나무'(2025)는 같은 이름으로 작업한 다섯번째 작품이다. 그는 "이번에 내놓은 다섯번째 '생명나무' 역시 점토를 와이어로 잘라내는 슬라이싱 기법으로 만들어진 작품"



이라며 "계시록 22장과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형상화한 이번 작품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생명나무'를 주제로 한 이번 도예전은 내년 1월 12일부터 2차 전시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서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원 재학 중 건국대 조교로 채용됐고 미국 플브라이트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캔자스대 대학원 석사 및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다.

후원광고

차명희 개인전

뮤지엄 호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풍로 315
T. 041 414 4464
F. 041 414 4454

점·선 — 감각

2025.10.2

— 12.28

성탄전 김형주(66회화)

본지는 지난 11월 6일 한울회와 함께 방문한 속리산 명에목성지에서 김형주 동문을 만나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톨릭 교회 미술품 설치와 회화작업에 대하여



현대에 이르러 교회 건축에 설치되는 미술품은, 더 이상 전통적인 미술사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범주에 머물지 않는다. 종교적 주제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작가의 예술적 감각과 상상력에 따라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업은 건축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만큼, 건축 도면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설계자의 의도와 공간 구조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또한 미술품이 건축물과 함께 오랜 세월을 견뎌야 하므로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다양한 재료를 다루는 능력과 현장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담대함도 필요하다. 그만큼 이 일은 매우 특별하고 도전적인 분야이기도 하다. 성당 설치 미술을 현대적 예술품으로 구현하기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흘렀다. 전국 각지를 다니며, 내비게이션조차 없던 시절 지도 하나에 의지해 작은 시골 성당까지 찾아다녔다. 그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참여한 성당이 125곳에 이른다.

작업 ‘우주로 향한 창문’에 대하여

성당에서 전시를 진행하며 성경 연구는 필수적 과정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들



명에목성지 세례성당 내부

을 오랜 세월 그림으로 표현해 왔다. 특히 성경의 내용을 현대적인 감각과 나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시각화하고자 했다. 건축과 미술의 접점에서 이루어진 미술작업은 다양한 재료를 요구한다. 다행히 여러 재료를 다루는 데 익숙한 나는 새로운 시도를 즐겁게 이어갈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은 특별한 아름다움으로 내 회풍 전반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색유리의 맑고 투명한 색감은 자연스럽게 내 그림 속으로 스며들어, 빛과 색의 새로운 조화를 이루게 했다. 건축 작업과 성경화를 그리는 시간을 넘어 나는 순수 회화의 발전을 위한 탐구를 끊임없이 이어왔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새로운 그림들 속에서는 사랑과 생명, 우주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사유를 나만의 감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도심 한가운데 서서 조금만 시선을 들어 올리면, 사람의 삶을 위해 고심 끝에 지어진 수많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온다. 그 사이로 하늘이 보이고, 그 하늘 위로 구름이 흘러가며 바람이 불고 비와 눈이 내린다. 그 하늘은 무한한 우주로 이어지고, 나는 그 속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느낀다. 빌딩들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내게 그것들은 수많은 색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다가온다. 김동문은 그동안 그린 작품들을 모아 2025년 12월3일부터 27일까지 세지화랑에서 ‘성탄전’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김형주 동문은 다수의 국제전에 참여했고 15회 이상의 개인전을 열었다. 2002년 가톨릭미술상 회화부문 본상을 수상했으며 125군데 성당에 미술품을 설치했다. 저서로 '그림으로 보는 성경이야기' 9권이 있다.



김형주 개인전
성탄전

2025.1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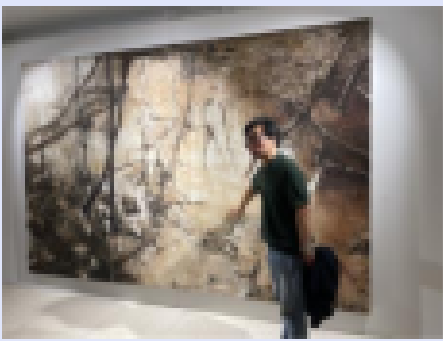
2025.12.27

세지화랑

북촌로4길 27 지하1층
Open 10am - 6pm
*일요일 월요일 휴관

퇴직기념전 ‘빛의 결, 바람의 결’ 이강화(81회화)

이강화 동문이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세종대학교 세종뮤지엄갤러리 1,2관에서 퇴직기념전 ‘빛의 결, 바람의 결’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회화의 흐름 속에서 이동문이 남긴 조형적 실험과 예술적 성취를 조망하며, 세대를 잇는 예술가로서의 존재감을 다시금 각인 시키고자 기획됐다.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교차점’을 회화로 실험해온 이동문의 미학적 궤적을 압축한 전시였다. 길이 10m에 달하는 초대형 변형 캔버스부터 빛바람갯벌의 감각을 색채로 재해석한 대작까지, 모든 작품은 ‘그림을 본다’는 행위를 넘어 ‘회화를 체험한다’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특히 대형 캔버스 연작은 클로드 모네의 ‘수련’ 연작을 연상시키는 물임형 공간으로 구성됐다. 관람객은 작품 속 자연의 호흡을 따라가며, 회화와 현실의 경계를 잃는 독특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회화뿐 아니라 가죽가방, 철재의자, 장승 등 비정형 소재를 활용한 오브제 작업과 AI를 접목한 미디어 작품도 공개됐다. 이는 그의 회화적 세계가 전통적 캔버스를 넘어, 동시대 조형언어와 기술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동문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물



의 형태를 잘 모르겠지만, 흘러가면 길이 된다. 그런 것들이 결국 그 물에 투영되는 것이, 빛의 결이고 또 바람의 결인 것 같다. 저런 데 한 번 가봤었지라는 기억이 있고, 거기에 추억이 있기 때문에 내 그림에는 그리움이 묻어난다. 오래되면 고물이지만 그 고물이 나에게 는 다시 보물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예술이 될 수가 있는 재밌고 짜릿한 순간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자연의 감각을 시각적 언어로 옮기면서 인간 내면의 기억과 감성을 탐구해왔다. 이번 전시는 그 여정의 결산이자 새로운 출발점으로, “자연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숨 쉬는 회화”라는 그의 신념을 구현하는 자리였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졸업후 파리 국립8대학에서 조형예술학 학석사를 마쳤다. 세종대 회화과에서 23년간 재직하며 후학양성과 창작활동을 병행해온 그는 들꽃과 빛, 바람 같은 일상적 자연을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한 색채로 표현해왔다. 지금까지 47회의 개인전과 국내외 주요전시에 참여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달빛과 별빛이 속삭이는 곳 박항률(70회화)

박항률 동문의 개인전 ‘달빛과 별빛이 속삭이는 곳’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렸다. 박동문의 전반적인 작업 세계를 돌아보는 본 전시는 인간의 내면과 존재에 대한 탐구를 추구해 온 그의 작가적 태도를 고찰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2025년 신작 및 1980-90년대 브론즈 조각, 목탄 드로잉 등을 포함해 3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주로 미니멀한 형태와 색채의 기하학적 추상 및 오브제가 주를 이뤘으나, 1991년 출간 한 첫 시집 ‘비공간의 삶’ 이후부터 구상으로 화풍



이 변했다. 또한 작업 초기에는 청색의 색조를 많이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붉은색이나 핑크색 등 따뜻한 색조가 두드러지는 작업을 선보인다. 그는 여러 원색을 섞어 새로운 색을 빚어낸 다음, 캔버스에 물감을 뿌리고 뿌린 물감을 키친타월로 닦아낸 후 한지를 이용해 다시 물감을 찍어 낸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여러 겹의 물감을 얇게 쌓아 올려 색을 중첩시키는 방식은 화면에 부드럽고 은은한 색채의 깊이를 만들어낸다.

그리움 이혜민(74응마)

이혜민 동문의 개인전 ‘그리움’이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청화랑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이동문이 오랜 세월 마음속에 간직해온 따스한 기억과 그리움을 회화로 풀어낸 작품들이 선보여졌다. 그는 현재 유년 시절의 추억이 깃든 양평의 시골집에 작업실을 두고 전업 작가로 활동 중으로, ‘그리움’이라는 감정의 미묘한 결을 섬세한 색감과 부드러운 붓질로 표현해왔다. 청화랑 관계자는 “이혜민 작가의 작품에는 일상의 온기와 시간이 스며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따뜻한 울림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모교 대학원 산업미술과 시각디자인 전공을 수료했다. 졸업 후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현실의 무게 속에서도 미술의 끈을 놓지 않았고, 틈틈이 그려온 작품들을 통해 마흔 무렵부터 본격적인 전시 활동을 시작했다.

신형상 미술, 삶의 언어가 되다 황현수(74조소), 서용선(75회화)

권정호미술관은 지난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6인의 중견작가초대전 ‘신형상미술, 삶의 언어가 되다’를 열고 있다. 황현수, 서용선 동문과 김정명, 안창홍, 유휴열, 권정호 작가의 이번 전시는 1980년대부터 한국 미술사조에 등장한 ‘신형상 미술’이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동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결 속에서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모색하고자 걸어온 여정을 확인할 수 있다. 황동문의 작품은 ‘서술적인 조각’, ‘형상성’, 또는 ‘상황’을 드러내는 조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그는 삶에 대해 조용하고 차분한 시선으로 응시하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표현한다.



대표작으로 각축의 인생(국립현대미술관), 생각하는 삶(아모레퍼시픽미술관) 등이 있으며 고대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서동문은 자신을 비롯해 도시와 거리의 사람들, 역사 속 사람들을 표현한다. 일상의 의식을 지닌 사람들의 역사를 사고하며 역사를 심리적으로 현재화하는 작업이나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응시하고 관찰하며 그려낸다. 200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에 선정되었고 제26회 이종섭미술상을 수상했으며 모교 교수를 역임했다.

할머니의 꽃밭 박은미(79회화)

박은미 동문의 초대전 ‘할머니의 꽃밭’이 지난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장은선갤러리에서 열렸다. 박동문은 그동안 동양화 재료들로 닭과 자연을 소재로 한 강렬한 색조의 화면을 그려왔다. 그는 그림을 통해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닭의 상서로운 기운을 담아낸다. 닭과 함께하는 자연을 진중한 색채와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화면에 그려냄으로써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그는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을 다양한 구도와 색채, 형태로 그려내어 관객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며 마치 관객이 화면 속 풍경에 속한 듯한 현장의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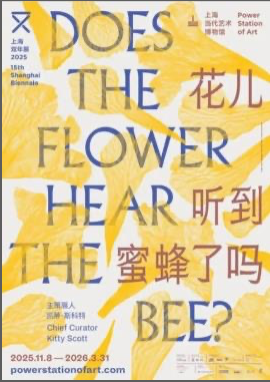


동감을 전달한다. 이번 전시에는 총 30 여점의 작품이 선보였다. 한편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박동문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비구상 및 구상 부분 심사위원을 담당했다. 제 16회 이북도민 통일 미술 대전, 경기 및 충청북도 미술 대전 등 다양한 미술 대전에서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을 맡았다. 다수의 아트페어에 작품을 선보였으며 400여 회의 초대전 및 단체전에 참여하여 중견 작가로서 작업을 지속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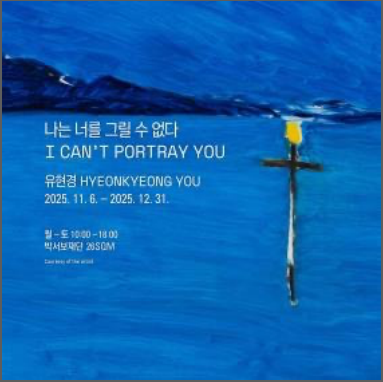
11월의 전시



채현교 초대전
채현교(90서양)
11.28-12.10
갤러리내일



where once we had a breakfast
원민영(19서양) 외
11.7-29
KOMPLEX



나는 너를 그릴 수 없다
유현경(05서양)
11.6-12.31
26SQM



노스탤지어
정직성(95서양) 외
11.4-12.28
각살롱



월인천강
강경구(동양73)
11.4-30
아트 스페이스 X



그냥 생긴 기억
김방주(06동양)
10.31-11.30
아마도예술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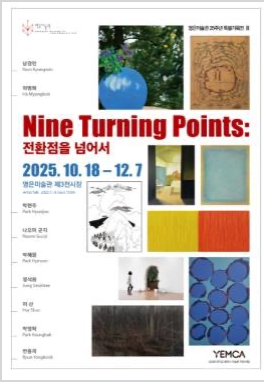
시인詩人 산정
서세옥(46동양)
10.23-12.7
성북구립미술관



바이블도자예술관 2025 도예전
서동희(66응미)
10.22-12.22
바이블도자예술관



제46회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오용길(65서양) 외
10.21-11.28
대한민국예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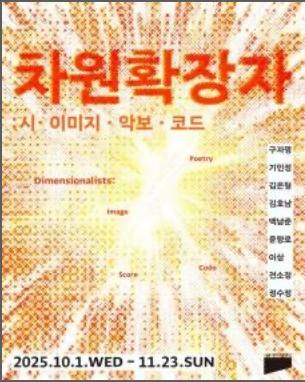
전환점을 넘어서
변용국(81서양) 외
10.18-12.7
영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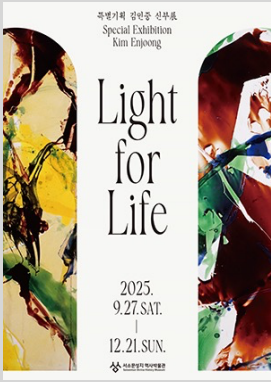
낮선자의 포에지
엄태정(58조소)
10.14-11.30
동탄북합문화센터



점·선-감각
차명희(64회화)
10.2-12.28
뮤지엄호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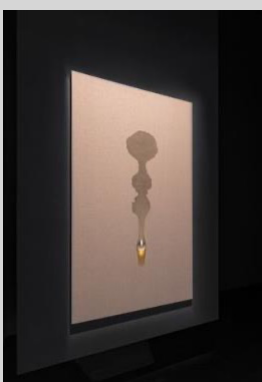
차원확장자
기민정(05동양) 외
10.1-11.23
서울대학교미술관



Light for Life
김인중(59회화)
9.27-12.21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아아! 동양화: 영원한 파 라 디 소
황규민(석23줄 동양) 외
9.25-11.30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김창열 회고전
김창열(48회화)
8.22-12.21
국립현대미술관



시시(時詩): 시간의 시
박제성(98디자인)
8.8-26.1.25
울산시립미술관



두 시선
전이린(86산미)·박상철(86산미)
6.15-12.15
갤러리 무위도식



석양에 내려앉은 눈
손동현(98동양)
5.9-11.27
이상범가옥